

남구, 청년취업 지원 3종 세트 인기

사회초년생 생활안정 장려금 지급 1인 2회 자격증 취득 응시로 지원 면접용 정장 1년 3차례 무료 대여 경제적 부담 완화·생활안정 도모

광주시 남구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남구는 취업 장려금·자격증 취득 응시로 지원·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정책 등을 통해 지역 취업 준비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은 2023년부터 남구가 취업한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남구 거주 청년(만 19~45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다는 것이 남구의 설

명이다. 지난해에는 18명의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22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취업장려금을 수령한 청년 중 2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명, 40대 2명 순이었다.

사회 초년생의 생활 안정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청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를 한 결과 취업장려금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남구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취업준비생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259명이 응시로 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남구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응시로 지원 혜택을 1인 2회까지 늘리고 어학분야 자격증 취득 범위를 16종으로 늘렸다.

응시료가 지원되는 자격증 시험은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중국어(HSK), 일본어(JPT·JLPT), 스페인어(DELE) 등 어학 16종과 국가기술자격증 545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다.

이와 함께 면접용 정장을 찾는 구직자들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 7월부터 광주시 동구 불로동 웨딩의 거리에 있는 ‘다나베 비스포크’와 계약을 맺고 면접용 맞춤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기성 정장을 대여하는 것을 넘어 전문 디자이너가 청년 구직자의 몸에 맞춰 기성 등을 수선해 준다.

남성은 자켓·셔츠·바지·넥타이를, 여성은 자켓·블라우스·스커트(바지) 등을 대여 할 수 있다. 3박 4일간 대여가 가능하고 한 사람당 1년에 3차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22명의 청년이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오는 12월 20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취업 장려금, 자격증 취득 응시로 지원,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모두 신청을 희망하면 남구청 6층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취업시장이 팽팽 얼어붙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성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따뜻한 한가위 보내요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원들이 지난 3일 광주시 북구 각하동 광주북구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추석맞이 명절 선물 나눔을 위한 송편을 빚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서구, 지역 우수인재 양성 장학금 지원

고등학생·대학생·학교 밖 청소년 113명...10월4일까지 신청

광주시 서구가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서구와 (재)광주서구장학재단(이하 재단)은 “다음달 4일까지 서구 행복교육과 또는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93명, 학교 밖 청소년 5명 등 113명이다.

올해부터는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해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 대학생에게 기존 100~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과 그 자녀다. 선발분야는 성적우수, 행복(일반), 행복(생활비), 다자녀,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분야 등이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성적만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정규대학생 중 4.5 학점 만점 기준 평균 4.0 이상인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행복(일반)장학금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성적 4.5 만점 기준 평균 3.0 이상인 대학생을 선발한다. 행복(생활비)장학금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과목 평균 5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4.5 학점 만점 기준 평균 3.0 이상인 대학생에게 주어진다.

3자녀 이상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을 전년 대비 15명 추가 선발하고, 장애등급을 가진 대학생과 초·중·고 검정고시에 응시·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장학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북구, 법률구조공단 등과 ‘악성 민원 대응 업무 협약’

광주시 북구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최근 광주북부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정부광주청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기관 대표와 ‘악성 민원 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협행위로 발생하는 민원 담당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 구축,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강화, 민원 공무원 회복 지원 확대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북구의 총괄 지원 하에 북부경찰이 현장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며 정부광주청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민원 공무원들의 심신 치유를 맡는다.

북구는 악성 민원 발생 시 직원에게 휴식 시간 보장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 배치 확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민원 공무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이 업무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받는 민원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광산구의회, ‘공동주택 지원 활성화’ 간담회

전체 세대 ‘76.5%’ 공동주택 거주...주민 소통·환경 개선 등 요구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공동주택에 사는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는 최근 공동주택 지원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광산구에 거주하는 17만1996세대 중 76.5%(13만1578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미옥(비례) 광산구의회 의원의 주재로 공동주택관리와 갈등 해결을 위

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을 완충하기 위한 역할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구민의 생활 터전이 마을에서 공동주택 단위로 변화함에 따라 입주민 간 원활한 소통 증진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중한 의견들을 토대로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트렌디한 매력’...충장로 1가 입구 새단장

도시 미관 저해 광고물 없애고 패션의 거리 디자인 입혀

빈 공실에 전단지 등 도배 돼 도심 흉물로 지적< 2023년 9월 21일자 광주일보 6면> 받던 충장로 빈 상가가 트렌디한 공간으로 새단장 됐다.

광주시 동구는 호남 대표 상권인 충장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외 방문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상인·건물주와 협력해 충장로 1가 환경 재정비에 나섰다 4일 밝혔다.

충장로는 과거 호남 대표 핵심 상권으로 충장로 1가 입구는 국 립아시아문화전당, 금남지하상가로 들어가는 교차로 차랑과 유동 인구의 통행량이 빈번한 곳이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적인

경기침체 탓에 충장로 1가의 공실률이 높아지면 서 입구의 건물 2동도 장기간 공실 상태였다.

무분별하게 부착된 광고 포스터 등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상인과 건물주들이 뜻을 모아 환경 재정비에 나서게 됐다.

동구는 상인과 건물주를 설득해 충장로 1가 패션의 거리를 나타내는 트렌디 한 도안을 입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충장로 1가 입구 환경정비는 방문 고객들을 위한 상인과 건물주들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사·츠업이다”면서 “앞으로도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